KIA 타이거즈가 26일 두산 베어스와의 시즌 9차전에서 나성범(왼쪽부터), 최형우의 백투백 홈런과 박찬호의 시즌 첫 홈런을 앞세워 5-2 승리를 거두고, 두 경기 차 1위를 지켰다. 〈KIA 타이거즈 제공〉

쾅! 쾅! 쾅!…KIA '대포'로 곰 잡았다

나성범-최형우 '백투백'·박찬호 시즌1호…네일 6승
두산 5-2로 누르고 위닝시리즈…2게임차 1위 지켜

'호랑이 군단'이 4연패 뒤 연승을 기록하며 1위 자리를 굳게 지켰다.

KIA 타이거즈가 26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시즌 9차전에서 5-2 승리를 거뒀다.

주중 사직 원정에서 시즌 첫 3연패를 당했던 KIA는 24일까지 4경기 연속 패배를 기록했지만 방망이가 다시 움직이면서 연승을 이었다.

4월 21일 키움전 이후 팔꿈치 부상으로 자리를 비웠던 두산 외국인 투수 라울 알칸타라가 이날 KIA를 상대로 복귀전에 나섰다.

KIA는 알칸타라의 몸이 풀리기 전 홈런 공세를 펼쳤다.

1사에서 김도영이 몸에 맞는 볼로 출루했고 나성범이 알칸타라의 4구째 135㎞ 포크를 우중간 펜스 밖으로 보냈다.

이어 타석에 선 최형우도 풀카운트 승부 끝에 6구째 포크볼에 반응했다. 최형우가 밀어진 공이 멀리 뻗어나가면서 시즌 9호포가 됐다.

나성범과 최형우가 연달아 그라운드를 돌면서 연속타자 홈런도 기록됐다. '백투백 홈런'은 시즌 18호, 통산 1134호, 팀 시즌 3호.

한준수의 볼넷으로 시작한 2회에는 박찬호가 홈런으로 경기장 분위기를 달궜다.

박찬호는 1사 1루에서 알칸타라의 2구째 145㎞ 직구를 좌측 담장 밖으로 날리면서 시즌 첫 홈런을 장식했다. 박찬호의 통산 14번째 홈런이기도 했다.

홈런으로만 5점을 만든 KIA는 4회부터 가동된 두산 불펜 공략에 실패했다.

추가 득점이 나오지 않은 사이 5회까지 무실점으로 KIA 마운드를 지키던 제임스 네일이 홈을 내줬다.

6회초 네일이 선두타자 조수행을 3구 삼진으로 처리했지만 정수빈에게 좌전 안타를 맞았다. 전민재의 타구를 직접 잡아 1루로 송구하면서 투아웃을 채웠지만 강승호의 우측 2루타가 나오면서 2루에 있던 정수빈이 홈까지 들어왔다.

네일은 5-1에서 양의지에게 몸에 맞는 볼도 허용했지만 양석환을 3루 직선타로 잡고 등판을 마무리했다.

네일의 성적은 6이닝(82구), 3피안타 3볼넷 6탈삼진 1실점. 47개의 투심으로 승부한 네일의 최고 스피드는 153㎞를 기록했다. 네일은 스위퍼(30개·127~142㎞), 체인지업(3개·138~141㎞), 커브(2개·124~127㎞) 승부도 펼쳤다.

이후 KIA는 최지민과 곽도규가 7·8회를 무실점으로 막으면서 리드를 지켰다.

8회말 2사에서 변우혁의 타구가 우익수 라모스 앞으로 향했다. 공을 잡으려던 라모스 뒤로 공이 흘렀고, 변우혁이 질주를 이어가면서 프로 첫 3루타를 장식했다. 한준수의 2루 땅볼로 이닝이 마무리되면서 변우혁이 득점에는 실패했다.

승리를 위한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남겨두고 KIA가 진땀을 흘렸다.

9회초 장현식이 마운드에 올라 강승호를 헛스윙 삼진으로 잡고, 양의지는 초구 중견수 플라이로 처리했다. 남은 아웃카운트는 하나, 하지만 양석환을 2루타로 내보낸 뒤 김재환에게 우중간 적시타를 허용했다. 5-2가 됐고 마무리 정해영이 출격했다.

정해영이 라모스와의 승부에서 우전 안타를 맞으면서 2사 1, 3루가 됐다. 두산이 이유찬을 대신해 홍성호를 대타로 투입했다. 정해영이 직구 승부를 하면서 3구째 헛스윙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6이닝 1실점 호투로 6승째를 수확한 네일은 "팀이 위닝 시리즈를 거둬서 기분이 좋다. 초반에 득점 지원을 받아서 더 편하게 할 수 있었다. 야수들의 수비를 믿고 던지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앞선 등판 때 두산 타선이 좋아서 조심스럽게 승부했는데, 유리한 볼카운트에서는 더 공격적으로 하려고 했다. 컨디션도 좋았고, 구속도 좋아서 만족스럽다"고 자평했다.

초반 흐름을 가져오는 '한 방'을 터트린 박찬호는 "속이 후련하다"고 웃었다.

박찬호는 "몸쪽 깊숙한 코스였는데, 내가 가장 힘을 잘 실을 수 있는 코스였다. 홈런이 없다고 동료들이 놀리기도 했고, 한 시즌에는 하나는 쳐야 할 것 같았다. 이제는 마음 편하게 칠 수 있을 것 같다"고 홈런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팬도 신났다

3674일만의 3경기 연속 매진 등 '챔필 최다매진' 12회로 늘어
KIA 1위 질주에 45만1299명 다녀가…'최단 100만'도 깰 듯

챔피언스필드 최다 매진 기록이 하루 만에 새로 만들어졌다. 3674일만의 3경기 연속 매진 기록도 달성됐다.

26일 KIA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의 시즌 9차전 개시에 앞서 오후 1시 15분 챔피언스필드 2만 500석이 모두 팔려나갔다. 시즌 12번째이자 3경기 연속 매진이다.

KIA는 전날 경기에서 'V11'을 이뤘던 2017년 작성된 '10회'라는 챔피언스필드 최다매진 기록을 경신했었다.

평일이었던 24일 경기를 시작으로 25·26일까지 만원 관중이 찾으면서 3경기 연속 매진도 이뤄졌다. 2014년 5월 3~5일 광주 넥센(현 키움)전 이후 3674일 만에 기록된 3경기 연속 매진이다. 챔피언스필드 두 번째 3경기 연속 매진이기도 하다.

매진 속도도 경이롭다.

앞서 2017년에는 63경기 만에 10번째 매진이 이뤄졌지만, 올 시즌에는 두산과의 맞대결이 전개된 지난 24일 24경기에서 10번째 매진이 이뤄졌다. 이후 26경기 만에 12번째 만원사례를 장식하게 됐다.

이날 관중석이 가득 차면서 올 시즌 챔피언스필드 누적 관중수는 45만1299명이 됐다. 평균관중은 1만7358명으로 늘었다.

챔피언스필드 역대 최다 관중(102만4830명)이 달성된 2017년 평균관중 1만4234명 보다 3124명 증가한 수치다.

평균 관중으로 단순 계산하면 올 시즌 홈에서 73경기를 치르게 되는 KIA의 누적 관중은 126만 7134명이다. 2017년 72경기에서 달성된 102만 4830명을 뛰어넘는 타이거즈의 두 번째 100만 관중이다.

이범호 감독으로 새 판을 짠 KIA는 올 시즌 1위 질주를 이어가면서 흥행 바람을 이어가고 있다.

KIA는 26일 경기 포함 올 시즌 52경기(원정 26경기·홈 26)에서 85만8356명의 관중을 동원했다. 평균 1만 6506명이 KIA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는 계산이다. 특히 52경기 중 22경기에서는 매진이 기록되는 등 '전국구 구단'의 위엄을 과시하고 있다.

한편 구단 역대 한 시즌 최다 매진 기록은 2009년 작성된 21회다. 당시 KIA는 1만2500석의 무등경기장을 안방으로 사용해 10번째 우승을 이뤘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통한의 1분'… 6위 탈환 무산

K리그1 인천과 원정경기, 종료 직전 페널티킥 허용 1-1 무승부
광주FC 최경록 선취골 빛바래…28일 안방서 포항과 '심기일전'

광주가 경기 종료 직전 승점 2점을 놓쳤다.

광주FC가 지난 25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진행된 인천유나이티드와의 K리그1 14라운드 원정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광주의 시즌 첫 무승부다.

후반 시작 1분 만에 광주 최경록이 선제골을 장식했지만 경기 종료 1분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인천에 페널티킥골을 허용하면서 아쉬운 무승부가 기록됐다.

광주가 이 경기에서 승리를 했다면 인천을 끌어내리고 6위로 올라설 수 있었지만, 1분을 지키지 못하고 1점씩 주고받는 것에 만족했다.

전반 13분 정호연이 오른발 중거리 슈팅을 선보였지만 인천 골키퍼 민성준에 막혔다. 2분 뒤에는 엄지성의 크로스가 변준수의 헤더로 연결됐지만 골대를 벗어났다.

전반 23분 김한길이 상대 공을 뺏은 뒤 시도한 슈팅과 1분 뒤 왼쪽에서 엄지성이 날린 오른발 슈팅이 모두 골키퍼에 막혔다.

곧이어 이건희가 뒤에서 올라온 공을 가슴으로 잡은 뒤 터닝슈팅까지 시도했지만 골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김한길이 전반 39분 시도한 슈팅도 골키퍼에 막혔고, 전반 종료를 앞두고는 인천 김성빈의 터닝 슈팅이 골대를 벗어나면서 광주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후반 시작하자마자 짜릿한 골이 나왔다.

후반 1분 엄지성이 왼쪽에서 크로스를 올렸고, 문전에 있던 최경록이 뛰어올라 헤더를 시도했다. 바운드 된 공이 골키퍼를 넘어 인천 골망을 흔들면서 '0'의 균형이 깨졌다.

후반 24분에는 교체 멤버로 들어갔던 정지용이 거침없는 질주로 상대를 몰고 인천 진영으로 진입했다. 왼쪽에서 있던 엄지성에게 넘겨진 공, 엄지성은 문전에 있던 이건희에게 공을 보냈다. 이건희 발까지 공이 연결됐지만 슛이 골대 위로 떴다 .

추가 득점이 나오지 않으면서 경기 흐름이 인천에 기울었다.

인천이 부지런히 슈팅을 날리면서 광주를 압박했고, 5분의 추가시간이 주어졌다.

추가시간 시작과 함께 빅톨이 왼쪽에서 공을 뺏어 전진한 뒤 반대쪽에서 질주하던 가브리엘에게 공을 넘겼지만, 아쉽게 슈팅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이후 경기 종료를 1분 남겨 두고 인천의 프리킥이 전개됐다. 광주가 열심히 공격을 차단했지만 연달아 인천에 다시 공이 연결되면서 숨 막히는 순간이 이어졌다.

정지용이 파울로 흐름을 끊는 것 같았지만 앞선 수비 장면을 놓고 비디오 판독이 진행됐다.

광주 페널티 지역에서 빅톨이 상대 패스를 머리로 쳐내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이때 머리를 지나친 공이 빅톨의 오른팔에 맞는 장면이 잡혔고, 결국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키커로 무고사가 광주 골키퍼 김경민 앞에 섰다. 올 시즌 7골을 넣으면서 득점 공동 2위에 자리하고 있는 무고사를 잘 막아낸 광주지만, 페널티킥골까지는 저지하지 못했다.

무고사가 오른발로 광주 골대 오른쪽을 뚫으면서 시즌 8호골을 장식했고, 이어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면서 광주를 울리는 동점골이 됐다.

아쉬운 무승부를 남긴 광주는 28일 오후 7시 30분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포항스틸러스를 상대로 승점 사냥에 나선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의 최경록이 지난 25일 인천유나이티드와의 원정경기에서 후반 1분 선제골을 넣은 뒤 주먹을 쥐고 포효하고 있다. 〈광주FC 제공〉